

주문량 몰린 여천산단 '풀가동'

광양제철 4호기 가동 일시 중단

여천NCC·LG화학 가동률 100%

에틸렌값도 상승 ... 업황 호조 기미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지역 석유화학업체가 새해 들어 가동률을 높이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나프타분해시설(NCC) 보유 업체인 여천NCC는 지난 2일을 기해 가동률을 100%로 높였다. 지난해 11월 19일 제3공장 가동을 중지하며 가동률을 70%대로 낮춘 후 2개월

여 만이다.

LG화학도 지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90%대 머물던 가동률을 풀가동하고 있다. 호남석유 화학 여수공장은 새해 들어 가동률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천 NCC관계자는 "유가가 떨어진다. 최근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재고를 소진한 하위업체들이 주문 물량을 늘려 풀가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하위 업체들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며 "석유화학 업황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t당 400달러까지 하락했던 에틸렌 가격이 최근 반등해 6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유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난 것도 업황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휴일 춘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구매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업황이 현재보다 호전된다는 뚜렷한 호재 역시 없기 때문이다.

여천산단 관계자는 "가동률이 높아진 이유중에 공장 운영을 위한 재고 확보 목적과 3·4월 이후 원료 가격 상승에 대비한 점도 있어 가동률 증가가 생산액 증가로 이어지는 않는다"며 "업황 회복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개월간 고로 개·보수작업 ... 감산 불가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제4호기 고로(高爐)의 개·보수를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에 따라 4호기 고로의 전면 중단과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일 "광양 4호기 고로의 개·보수를 5월 8일~8월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 4호기 고로의 개보수는 통상 가동한 지 10~15년이 되면 개·보수를 해야하는 정기보수로 현재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각각 5개씩 10개의 고로를 가동하고 있다.

개·보수가 예정된 광양 4호기는 지난 1992년 9월 가동을 시작했다. 연 300만톤의 생산능력이 있으며, 이번 가동중단으로 100t정도의 감산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개·보수 후 생산능력은 460만톤으로 늘어나지만 이 기간 생산 중단으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고로가 멈춰 감산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시 가동이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 차이는 작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경기가 회복할 것

로 보고 하는 계획으로 세계적인 철강수요가 크게 위축돼 현재로서는 한 치 앞도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사상 처음으로 감산에 돌입한 데 이어 올 1분기(1~3월)까지 계속된 감산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20만t, 올 1월 37만t, 2월 20만t 총 77만t의 감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는 애초 광양 4호기 고로의 개·보수를 4~6월기로 앞당길 예정이었으나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멘트값 22% ↑

업계 t당 7만2000원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가 올들어 일제히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등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올해부터 시멘트값을 t당 7만2천원으로 종전 5만9천원 대비 22%(1만3천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종전 t당 5만9천원에서 7만4천~7만4천500원으로 25~26%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가격 협상이 되지 않자 이번에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지난 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부터 환율이 크게 올라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수입 유연탄 결제대금이 늘어난데다 누적 경영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멘트사들이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유연탄 가격이 현재는 t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t당 185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구입한 유연탄이 원가에 반영되고 있고, 전력비·운임비 등도 최근 1년 새 10~15% 상승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럽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유럽을 방문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5일 유럽전략 차종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차 유럽기술연구소에서 컨셉트카를 둘러보며 "유럽 현지인들이 원하는 차량을 개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美서 호평

8개 차종 '최우수 추천차' 선정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발간된 미국의 유력 자동차 구매 가이드 책자인 '카북 2009년판'(The Car Book 2009)에서 8개 차종이 '최우수 추천차종'(Best Bets)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카북은 매년 미국에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대표적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 안전센터'(The Center for Auto Safety)와 함께 자동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 품질만족도, 총물량안전성, 연비, 유지비, 수리비, 보험비용 등 10개 분야를 평가해 각 차급

별로 '최우수 추천차종'을 발표하고 있다. 카북 2009년판은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209개 모델 중 42개 모델을 최우수 추천차종으로 선정했으며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투싼, 베르나, 앙트라지, 모하비, 로제, 카렌스, 제라토 등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종의 절반을 명단에 올렸다.

카북은 1981년부터 발행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전문지로 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유명 가이드북 중 하나다. /연합뉴스

'소주대전'

롯데, 두산주류 인수 매들 ... 내달 시장 진출 보해,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공격 마케팅 강화

음료업계의 강자 롯데가 다음달부터 소주시장에 뛰어들다. 이에 따라 향후 소주인 보해가 안방시장을 어떻게 지켜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보해 등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두산주류BG(Business Group)를 인수한 롯데주류BG는 다음달 '처음처럼'의 제조권을 두산에서 롯데로 바꾼다. '롯데소주'가 본격적인 시장 경쟁전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롯데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처음처럼'을 매장에서 전진배치하고 진열 공간도 크게 늘렸으며 3월 10일께 두산타워에 있는 두산주류BG의 인력인 롯데주류BG로 이사하는 등 두산소주의 롯데 소주 전환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소주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탄생함에 따라 전남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6%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보해도 비상이 걸렸다.

보해는 올 지역 점유율 85% 달성목표를 세우고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해는 ▲지역밀착 마케팅 ▲할인매장과 24시간 편의점 공략 ▲59년 향토기업 부각으로 지역 토착기업 이미지 알리기 등 3가지 판매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로 측은 롯데 소주의 등장에 대비해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시장점유율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하우젠 김연아 마케팅 김연아가 '싱싱송'과 '싱싱댄스'로 삼성하우젠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일 김연아를 앞세운 2009년 하우젠 에어컨 '싱싱' 캠페인 1차 CF를 공개하고 '김연아 마케팅'을 본격화 했다. (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수입 기저귀·분유

3년간 부가세 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군', '메리스', '겐가' 등 수입 기저귀도 3년 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에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을 106조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3년 간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문제풀이반 4주완성 수시접수 국가+지방직 소수필이론반 (영어)10기능직 (영어)10기능직 (영어)10기능직 (영어)10기능직

www.mdgosl.co.kr 222-4560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5년 전통 • 광주지역 최대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 직강" "2009년 9월 20일 시험" 주택관리사 犬 개강 2월 2일

犬 개강 2월 2일

2개월 완성

227-8003 971-0002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www.assetkorea.com

구분	소재지	면적	평	총층/층	건평	최저가	비고	
근린시설/원룸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
주택/재개발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
주택/재개발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	대전/건물	간평가	최저가	비고